

달라이 라마, 인도 뉴델리 방문

中·印 국경 분쟁 등 '조용한 전쟁' 서막

히말라야 산맥의 광대한 초지를 국경으로 21세기 최대 라이벌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달라이 라마의 지난 4월 7일 뉴델리 방문을 기점으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허프포스트(Huffpost·www.huffingtonpost.com)는 5월 1일 "뉴델리 국제불교컨퍼런스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기조연설을 한 것에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인도 북동부에서의 국경 분쟁의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국경분쟁의 불씨가 달라이 라마의 뉴델리 행보로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 정부는 지난 1월 18일 국경 분쟁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실무협의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제한 허프포스트 지는 "그러나 달라이 라마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며, 실무협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붓다가 태어나 자라며 깨치고 가르친 곳, 인도와 인구의 40%가 불자인 중국이 달라이 라마의 행보에 각을 세우는 '아이라니'를 연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와 중국 베이징이 국제불교컨퍼런스 개최지 경쟁을 할 때부터 이미 징후를 보였다는 것이다.

당시 개최지 선정 회의에 참석했던 900여 명의 불교 지도자들은 "중국이 달라이 라마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라는 점에 주목, 인도 뉴

델리를 국제불교컨퍼런스 개최지로 확정한 바 있다.

허프포스트 지는 "이때 중국과 인도 간의 신경전이 매우 날카로웠다"고 전하고, "인도 정부는 달라이 라마가 4월 8일 뉴델리를 방문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종교적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의 악화를 경고하고 나섰다"는 데 주목했다.

인도 뉴델리 국제불교컨퍼런스에서는

달라이라마 보려고 2만5000명 모여
中 "방문 허용 양국외교 해치는 일"
지나해 12월부터 中·印 대립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보기 위해 약 2만5천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몰려들었으며, 인도 정부도 국민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뉴델리 방문을 인도 정부가 허용한 것은 양국 외교에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는 지난달 23일 "중국과 인도는 가끔 협력 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경 분쟁은 물론 교역, 에너지 투자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며 "달라이 라마의 인도 뉴델리 방문은 이러한 대립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게 빌미를 주고



4월 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불교컨퍼런스(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 중국 정부는 뉴델리 불교행사 개최에 앞서 인도 정부에게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이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를 침략한 이래 시작된 국경 분쟁이 자자하고 있지만, 달라이 라마의 인도 뉴델리 방문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조용한 전쟁(quiet war)의 서막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1956년 이전까지 우호적이었다. 인도는 중국 공산정권 수립 시 이를 승인하였고, 중국의 티베트 합병을 묵인하였으며, 반동 회의에서 함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점차 아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로 돌변하게 되었고, 중국이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Arunachal Pradesh) 지역에 대해 중국 영토권을 주장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영토 분쟁으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또한 1959년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을 인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양국은 긴장 관계로 돌입했고, 급기야 1962년 두 나라 군대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의 국경 문제를 놓고서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후 인도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티베트의 독립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나섰고,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었던 파키스탄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등 중국과 인도는 외교적, 정치적으로 여러 차례 충돌하며 대립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古 문헌 세밀히 고찰 중세 불교 연구

세계의 불교학자(17)

스티븐 타이저 美 프린스턴대 교수



스티븐 타이저 (Stephen F. Teiser) 교수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불교학자 중 한 사람이다.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쓰여진 미국 주요 불교 서적들에는 스티븐 타이저 교수의 서평이 항상 있다. 그만큼 미국 학계에서는 그의 평가를 중요시 여긴다.

타이저 교수는 1978년 미국 중부 오버린 대학에서 동아시아학(East Asian Studies)을 전공으로 졸업한 뒤 프린스턴 대학에서 1986년 석·박사를 졸업했다. 그는 대만에서 2년간 연구한 '중세 중국의 우란분제(盂蘭盆齋) 연구(The Yu-lan-p'en Festival in Medieval Chinese)'를 졸업논문 주제로 했으며 졸업 후 미들베리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강의를 하다 1988년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다.

타이저 교수는 1990년대 말 하버드대 불교학 교수로 임명이 됐지만 프린스턴대에 남기로 결정한다. 프린스턴대에서 그는 동아시아 불교학을 가르치면서 '프린스턴대의 D.T. 스즈키'로 불린다. 서양에 불교를 알린 주요인물인 D.T. 스즈키처럼 프린스턴대에서의 그의 역할은 중요하다.

스티븐 타이저 교수의 연구는 사회 안에서 불교가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해 왔는가에 맞춰져 있다. 전통적 종파 중심의 불교 교리나 사상을 위주로 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관점에서 시작한다.

기존 학자들은 중세 중국 불교의 철학적 사고나 체계에만 중점을 둔 반면 타이저 교수는 중세 중국 불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회, 문학, 예술학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출발한 전통불교가 어떻게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통해 전파됐는지 연구하는 대신 중국 사회 안에서 불교가 다른 종교들과 정치, 미술, 문학 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초점을 뒀다.

그는 또한 중국 불교가 도교나 민간 신앙, 유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고, 중국 중세 정치와 불교 제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연구도 한다.

타이저 교수는 프린스턴대 졸업논문 주제였던 <중국 중세사회의 우란분제 연구(The Ghost Festival in Medieval China)>라는 책으로 미국 학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그는 불교 경전이나 위경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중세 설화나 의식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했다. 현재 이 책은 미국 대학에서 중국 종교나 중국 중세사를 공부할 때 교과서로 쓰일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됐다.

또한 그는 중국 불교인들이 내세우며 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중국의 <십왕경(십왕경)(The Scripture on the Ten Kings)>을 통해 다뤘는데, 책에서는 둔황 자료를 비롯해 미술 자료, 일본, 중국, 한국, 프랑스에 흩어져 있는 2차 자료를 주요 연구 과제로 삼았다. 미국 아시아 연구 모임인 구로다 학회에서는 이 책을 1994년 '중세 부분 최고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타이저 교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10세기에 쓰여져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둔황 문헌을 찾아 집적적으로 공부했다"고 말한다. 그만큼 그는 연구하기로 정한

미국서 영향력 있는 학자

프린스턴 대의 D.T. 스즈키

美 주요불교 서적엔 그의 서평 있어

불교의 수용·변화과정 중점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된 잘 보존된 문서나 유물을 찾아 읽고 공부할 정도로 치밀한 학자의 면모를 보인다.

이 밖에도 타이저 교수는 중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와의 관계로 고고학, 사회·역사학 관점에서 중세 사찰 건축 구조와 미술을 분석한 책 <바퀴의 재창조: 중세 불교 사원에서의 유훈 문화 연구(Reinventing the wheel: Paintings of the wheel of Rebirth in Medieval Buddhist Temples)>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묘법연화경(The Lotus Sutra), 2009>를 펴내 중국, 한국, 일본 문화에 불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배경을 추적했다.

한편 스티븐 타이저 교수는 2008년 서울대가 주최한 국제학계강좌(ISI)에 참여해 동아시아 불교에 대해 강의했다.

2013년 까지 프린스턴대 동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할 예정인 타이저 교수는 "현재 중국불교 수행과 중국 중세의 불교의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을 수 놓은 봉축 물결

조계종 미동부특별교구, 뉴욕봉축퍼레이드 개최

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위광)는 오는 5월 6일 뉴욕 맨하탄에서 제24회 뉴욕 불교국제봉축퍼레이드를 개최했다.

1989년 시작된 매년 제2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뉴욕불교국제봉축위원회(ICCB, 이사장 성해) 주최로 진행돼 왔으나, 뉴욕불교국제봉축위원회가 행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을 미동부 해외특별교구에 이양했다.

올해 봉축행사는 맨하탄 유니온스퀘어 파크에서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맨하탄 15번가-6애브뉴-18번가-브로드웨이-14번가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미동부 교구와 지역 불교위원회(Buddhist Council)가 함께 프로그



2011년 뉴욕에서 열린 불교국제봉축퍼레이드에서 법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램을 구성했으며, 법요식에서는 교구장 휘광스님과 일본 측 나가사키 스님, 스리랑카 측 샷다지와 스님이 축사를 진행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부처님 두개골 사리, 홍콩·마카오에 이운

中·香港불교연합 공동 주최... 제3회 세계불교포럼도 열려

중국 치사사(Qixia Temple·난징 소재)의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가 4월 25~30일 홍콩 폴리세움(Hong Kong Coliseum), 5월 1~4일 마카오 동아운동회체육관(Macao East Asian Games Dome)에서 각각 전시됐다. 이번 전시는 중국불교연합과 홍콩불교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중국 문헌상에 '불정진골(佛頂眞骨)'로 표현되어 있는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는 2008년 중국 난징 금릉대보은사 터 지하 공전에서 발굴되어, 현존하는 유일한 두개골 사리로 평가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금까지 석가모니 치아사리만이 1999년과 2004년 두차례 전시되었을 뿐이다.

한편 중국불교연합은 4월 25일 제3회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와 금도금보탑

11대 판첸 라마를 비롯해 50여 개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참여, '불상 보존', '불교 교육', '불교 복지'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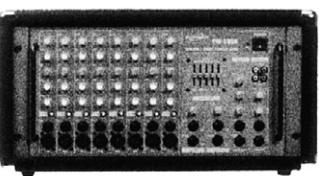
오종욱 편집위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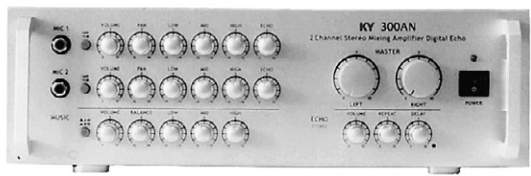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정 자체에서 소리, 음질 보정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135,000원(일반형)
◇가격: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입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